

지역 소식통

정읍시, 야외 승마객 모집
체험 비용 60% 지원

정읍시가 농촌 관광 활성화와 승마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농촌관광 활성화(의승) 지원사업' 참여자를 본격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형 승마 시설 주변의 야외 코스를 직접 말을 타고 달리는 '의승(야외 승마)' 프로그램이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청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했다. 기승 능력 인증제 7급 이상 보유자이거나 말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3년(2023~2025년) 이내에 의승 보조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확인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1회 2시간 기준으로 진행되는 의승 체험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체험비 15만원 가운데 국비와 지방비로 60%인 9만원이 지원된다.

프로그램은 그룹별로 최소 1명 이상의 전문 안전요원이 반드시 동행한다. 또한 모든 참여자는 스포츠안전서비스 등 개인 상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만 체험에 나설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개별지적도

정비사업 3개년 추진

부안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안지사와 개별(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도면 간 토지경계 불일치와 지적도면의 결핍, 이격 등 지적공부 등록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202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부안읍, 주산면, 동진면, 계화면, 백산면, 위도면 등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적·도곽 간, 행정구역 간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측량상과 결정문제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다양한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동학농민혁명기념제 준비 '착착'

정읍시, 내달 9일 개막 앞두고... 동학 유관기관 등 모여 행사 전반 막바지 점검 돌입

정읍시가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6일 제2차 조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행사 전반에 대한 막바지 점검에 돌입했다.

이날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길 기념제 조직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동학 관련 단체를 비롯해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유관 기관 및 단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념식 운영 계획부터 축하 공연, 주요 프로그램 구성, 안전 관리 대책, 홍보 전략 등 핵심 사안을 꼼꼼하게 논의했다.

특히 올해 기념제는 다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동선과 현장 운영, 관람객 안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행사의 완성도와 상징성을 한층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제59회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다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



고 자유와 평등, 인간 존엄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 기간에는 구민사 감오선열 제례와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제 등 추모 행사를 비롯해 그날의 합성을 재현하는 511 공연(퍼포먼스), 기념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불거리도 풍성하다. 정읍시 대표 공연인 실내악 연주곡 '용오름'과 참무극 '천명', 기희 공연 '모두의 하늘'을 통해 동학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의 공연으로 풀어낸다. 여기에 손태

진, 조재즈, 만데이키즈, 경서, 허각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축하 공연이 더해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띄울 예정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알차게 마련된다.

한편, 시는 다음 달 기념제 개막 전까지 분야별 철저한 안전 점검과 기관 간 긴밀한 협업,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사제' 죽도마을 방문

건강 사각지대 해소 총력

고창군은 최근 고창 유일의 유인도인 부안면 죽도마을을 찾아 '마을주치의사제' 활동의 일환으로 주민 건강 상담활동을 실시했다.

현재 23세대 37명이 거주하고 있는 죽도는 정기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은 '무의촌'으로, 고령의 주민들이 만성 질환 관리나 일상적인 진료를 받기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마을주치의사제' 사업은 건강 사각지대 마을을 대상으로 통합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죽도 또한 매년 방문계획을 수립 후 주기적으로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총 6명(한방 공중보건의 1명, 보건담당자 2명, 부안면 3)이 동행했다. 죽도 경로당 이용주민

2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진(혈압, 혈당), 주치의 진료 1:1 건강상담과 만성질환 예방교육, 치매 조기검진 등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의약품(파스, 기력회복제)과 보건사업 홍보물품(6종)을 배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거동이 불편해 경로당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 및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등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사후 인증 심사 '적합'

부안군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2025) 사후 인증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며 청렴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운영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 인증 제도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 정책과 절차, 내부통제 체계를 조직 전반에 내재화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한 이후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또 부패 리스크 관리 강화와 직원 청렴교육 확대 등을 통해 군정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힘써왔다.

이번 심사는 국제표준에 따라 구축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운영

적합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국제표준 인증 심사 자격을 갖춘 외부 인증기관이 주관해 실시됐다.

심사 과정에서 부패 리스크 식별 및 평가, 개선계획 수립·이행 등 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졌으며 군은 인증 범위인 지방자치행정의 기획,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부패방지 경영활동 전반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포식

고창황윤석도서관서 올해의 책 4권 선정·최상희 작가와의 만남

고창군이 지난 16일 저녁 고창황윤석도서관 다목적강당에서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 선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026 책 읽는 고창, 올해의 책'은 고창황윤석도서관 개관에 따라 모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올해의 책을 선정하여 함께 읽고 소통하기 위한 독서문화 캠페인의 일환이다.

고창군도서관은 지난 3월 31일 군민과 함께 읽고 공감할 올해의 책 4권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도서는 일반문학 분야 △재철행복(김신지), 비문학 분야 △청춘의 독서(유시민), 청소년 분야 △눈의 렌(최상희), 어린이 분야 △진진(투리) 총 4권이다

이번 선포식에는 100여명의 고창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책을 선포하고 선정 작가(청소년분야 최상희작가)에게 직접 인증서 전달과 진솔한 선정 소감이 공유되었으며, 직접 참석하지 못한 작가들의 소감 영상도 함께 상영되어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 일반문학, 비문학, 청소년, 어린이 부문별로 선정된 총 4권의 책 주요 문구 낭독이 이어지며, 도서관이 가진 깊은 메시지와 감동을 참석자 모두와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히, 2부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부문 선정작 '눈의 렌'의 저자인 최상희 작가가 만남을 마련하여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개최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 시작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7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순왕후의 서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지털 입체 콘텐츠 개발과 인근 관광지와의 유기적 벨트화를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역사문화 현장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어, 황해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 수용성을 무시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불허와 기존 허가 취소사업 촉구하는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일정은 20일부터 2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조례안 등의 안전을 심사할 계획이며,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 '짚와이어' 21일 개장

정읍시가 구절초 지방정원의 수려한 풍경을 공중에서 만끽할 수 있는 명물 '짚와이어'를 오는 21일부터 본격 개장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다. 이용 요금은 성인 9000원, 청소년 7000원이다. 단, 정읍시민을 비롯해 10인 이상 단체 방문객과 구절초

축제 기간 중 유료 입장객은 2000원이 감면된 혜택가로 답습할 수 있다. 한편, 구절초 짚와이어는 강풍이나 우천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안전을 위해 운영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당일 운영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010-9521-5698, 063-539-6173)로 미리 문의하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